

[사회]

‘교장 탄핵’ 교사·교장 모두 징계

교사들이 교장 교체해 요구해 파문이 일었던 광주 W초교 교장과 교사 양측 모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광주 서부교육청은 16일 “광산구 W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장 교체 요구 집단행동과 관련해 교장에게는 경고를, 교사들에게는 기관주의 조치를, 교감 2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정상화라는 판단 아래 교장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속한 진상조사를 펼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며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사들이 요구한 교장 전보권을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지 않아 결정된 것은 없지만, 학교 분위

기 쇠신 등을 고려한다면 내년 3월 1일 정기인사에서 교장에 대한 전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장과 교감의 경우 개인에게 내려진 조치여서 근무 평가 등에 징계로서 효력을 지닐 수 있지만, 교사들이 받은 기관주의는 집단에게 내려진 첫 조치로 교장 교체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W초교 교사 61명은 최근 학교장의 비민주적 학교 경영에 불만을 제기하며 교장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했으며, 교장은 이에 대해 교사들의 나태한 근무태도를 두고 볼 수만 없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라고 주장해 서부교육청이 진정서조사를 벌였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주검되어 고향 오다니...” 오열

‘미 전투기 추락 참사’ 한인 가족 담양에 빈소

지난 8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미국 전투기 추락사고로 숨진 김석민(여·60·담양군 무정면) 씨와 딸 이영미(36)씨, 손녀 윤하은(2)·하영(생후 2개월)양 등 일가족 4명의 빈소가 16일 고향인 담양군 담양읍 동산병원에 차려졌다.

출산을 앞둔 딸과 손녀를 돌보러 지난 8월 21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씨와 가족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들의 장례는 지난 14일 미국 샌디에고 현지에서 치러졌다. 이중 김씨의 유해만 15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16일 빈소가 차려진 동산병원 장례식장은 김씨의 가족·친지, 동네 주민들과 함께, 주한 미군 고위 장성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빈

소에는 “손녀들을 길러준 장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물어달라”는 사위 윤동윤(37)씨의 뜻에 따라 김씨의 딸과 손녀들의 사진이 함께 차려져있었다. 유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안정을 되찾아 가는 모습이지만, 간간히 오열을 터트리기도 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같은 동네 주민 김모(여·72)씨는 “김씨가 큰손녀를 미국서 데려와 애지중지 키웠다”며 “딸의 산후조리를 도와준다면 갔던 미국에서 주검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미국에서 장례를 치른 뒤 부인

의 유해와 함께 귀국한 남편 이석현(63)씨는 “미국에서 모금운동을 비롯한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골과 마음이 지친 사위는 미국에 있으며, 한인 변호사들의 도움 아래 대책을 모색중이다”면서 “전투기 추락사고 자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팬터(Frank A. Panter) 한미연합사 기획참모부장과 장우규 연합사 부참모장 등 군 관계자들도 영정 앞에서 분향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주한미군 해병대는 인천공항에서 담양까지의 운구를 돕기도했다.

숨진 김씨는 손녀 하은 양을 담양에서 직접 기르던 중 딸의 출산이 가까워 오자 손녀를 데리고 지난 8월 21일 미국으로 건너갔다. 지난 8일 전투기 추락사고로 딸과 손녀들과 함께 참변을 당했다. 김씨의 사위 윤씨는 직장에 출근했다가 유일하게 목숨을 건졌다.

/김현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지부린 하늘, 맑은 후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다. 광주, 목포, 여수, 양도, 구례, 장흥, 송천, 영광, 진도, 남원, 흑산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 상당수 수입 금지된 中 돼지 내장 사용

은 국민이 즐겨찾는 반찬거리인 소시지와 햄 등 육가공제품 상당수에 규제역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돼지 내장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해경은 이번엔 적발된 업체와 현재 조사중인 업체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국내에 유통된 육가공제품 대부분에 중국산 돼지내장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산 돼지 내장은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소시지 곱질 등에 사용됐으며 M사와 L사 등 8개 대형 햄 제조업체가 이 업체들로부터 중국산 돼지 내장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16일 낮 미군 전투기 추락사고로 숨진 김석민씨와 딸, 손녀들의 빈소가 마련된 담양군 동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객이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해남 견고추·목포 갯 잔류농약 검출

전남지역에서 유통 중인 마른 고추와 갯 등 일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16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달 목포시와 해남군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배추·무·마른 고추·갯 등 곡류 및 채소류 등 10건에 대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남 마른 고추와 목포 갯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남 견고추는 엔도스ulfan(Endosulfan) 성분이 기준치 0.1ppm을 크게 초과한 0.523ppm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목포 갯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성분이 1.82ppm검출돼 기준치인 0.01ppm을 10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엔 검사를 받은 배추·무·대파·생강·마늘·당근 등에서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일선 시·군으로부터 유통 중인 농산물을 의뢰받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며 “일부 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문제가 된 것과 같은 종류의 유통농산물 전체를 문제삼아는 무리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 중학생 22명 미국 무료 연수 간다

22일부터 교사 2명도

우수한 영어실력을 갖춘 전남 지역 중학생과 교사들이 처음으로 미(美) 유명 대학에서 전액 무료 연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전남도는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1개월간 중학생 22명과 교사 2명을 대상으로 미국 미주리대 위탁 연수를 실시한다.

이전 해외연수 사업은 전남도가 처음으로 전액 도비를 지원한다. 연수 대상은 지난 7월 운영한 무료영어체험캠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과 영어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중에서 교육감 추천을 받아 22명을 선별했고 우수교사 2명은 헌신적으로 영어체험 캠프 활동에 기여한 교사들이다. 해외연수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학생 6

명이 포함됐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전남도와 교육교류 협약을 맺은 미국 미주리대에서 주관하며 미국의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어학 심화학습과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에 중점을 뒀다. 특히 연수 기간 홈스테이와 기숙사 생활을 병행하며 문화체험과 현지 기관 방문도 함께 진행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도 내년 등록금 동결

전남대가 내년도 등록금 동결 대책에 합의했다. 전남대 김윤수 총장은 16일 교내 구성원에게 보낸 답화문을 통해 “고심 어린 논의를 거쳐 2009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는데 뜻을 모았다”며 “이번 조치로 대학 운영에 다소의 차질이 있더라도 지역사회와 학부

모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양해하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까지 광주·전남에서 내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조선대, 광주대, 광주여대, 호남대, 동신대, 목포해양대 등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지방 출신 학생들에 9급·기능직 공무원 공채 서울대, 하숙비 보조 저소득층 1% 이상 선발

서울대가 경제난을 감안해 내년 등록금을 동결한 데 이어 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학생들에게 하숙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최근 17억원의 예산을 편성, 앞으로 17개월간 학생 1천명에게 ‘기숙 보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기숙사 입주 자격이 있으나 정원 초과로 입주하지 못한 지방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형편이 특별히 어려운 1천여명을 선정해 하숙비와 기숙사비 차액의 절반 정도인 10만원을 매달 지급할 계획이다. 장재성 학생처장은 “경제가 어려워 하숙비가 워낙 비싸서 이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9급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일반직 9급 공개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현재 약 154만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자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제주시 노령동 741번지. 등록번호 616-81-68236. 제주무궁화관광을 쳐보세요!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 등반 +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99,000원) 방원림,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